

시인의 마음



로켓, 그 거대한 문장을 품고

시시를 담다

파란 하늘을 올려다본다. 어린 시절, 상상의 세계가 바로 하늘이다. 어쩌나 하늘이 맑던지, 눈이 아플 정도다. 그냥 눈에 담아만 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워 사진으로 남긴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듯한 두 개의 구름은 마치 대기권을 향해 날아가는 로켓 형상이다.

우주 발사에 관한 기술은 일곱 비밀이다.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점은 우주개발 최대 장점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위성을 발사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제약이 따랐다. 지난 6월 21일에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힘차게 우주로 날아올랐다.

이처럼, '우주'는 미래를 향한 나라마다의 발걸음이다. 대한민국은 우주로켓 개발을 위해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서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 실험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서로의 국력과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같이 가야 한다. 우주 공간으로 나간 후에야 너와 함께인 줄 알았다. /에메랄드빛 하늘에는 혼자가 아니다. 위로, 위로, 대기권을 향해 올라가다 보니, /대기권도 뜨겁지 않다. /미사일이 아닌, 로켓이라는 거대한 문장을 품고, /즐거운 생각 덩어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우주로 흩어야 하지 않겠는가? 누구를 위한 미사일이며, 로켓인가?



박 여 범

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우주 공간으로 나간 후에야 너와 함께인 줄 알았다
에메랄드빛 하늘에는 혼자가 아니다
불태운 대기권도 뜨겁지 않다
미사일이 아닌, 로켓이라는 거대한 문장을 품고
즐거운 생각 덩어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우주로 흩는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녹는 것을 막아라” 흰 천에 덮인 스위스 빙하



13일(현지시간) 스위스 푸르카테스 인근 글레처에 있는, 알프스에서 가장 오래된 롬 빙하 일부가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흰색 천에 덮여 있다.

세금인상 항의하며 도로 점거한 헝가리 시위대



13일(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정부의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금 인상 법안 통과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사설

부모찬스 무엇이 문제인가

부모 찬스는 부모와 찬스(Chance)가 합쳐진 말이다. 긍정하지 못한 세태를 냉소적으로 표현한 신조어다. '부모찬스'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을 부모의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의 사회적 신분, 경제적 부, 정치적 권력을 기회 삼아 이득을 누리는 것으로 일종의 신분세습이다. 부모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공정과 상상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

이것이 본인보다 부모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교육을 통해 강화되고 사회적 지위는 자녀에게 대물림된다. 부모찬스 사회는 기득권층과 세습엘리트들만 올라가는 출세의 사다리를 견고하게 만든다.

부모찬스를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의 사회이동을 위한 사다리는 발판 곳곳이 썩어 없어진 지 오래다.

엘리트계급 부모의 자녀들은 이미 우월한 자산을 타고났다. 딸 그대로 금수저다.

불공정 지면에는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있다. 예외가 거의 없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학력자이고 존경받는 사회지도층 인사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자녀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한다.

계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아이들의 꿈이 부모의 지위와 재력 등에 따라 단절된다면 이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다. 교육을 통해 출발선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교육의 오랜 과제이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기초 단계다. 대학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103건에 달한다.

미성년자를 저자로 이름을 올려준 '부정' 사례는 27개 대학 96건으로 집계됐다. 반칙을 일삼는 일그러진 부모들의 존재가 큰 장애물이다. 부모찬스로 인한 불평등한 출발선을 걷어내야 한다.

익산경찰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전북 익산경찰서의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이 체류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5월 19일 익산시가축센터 교육장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가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상반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에는 베트남 14명, 방글라데시 4명 등 4개국 24명의 관내 체류 외국인이 참여했다. 수업은 외부 학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

또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자국어로 학과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언어별 교재를 무료로 제공했다.

특히 운전면허 교육과 범죄 예방 교육의 병행을 통해 한국 생활에 안정적 정착과 범죄 예방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최규은 익산경찰서장은 "이번 운전면허 교실이 외국인 무면허 운전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류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본국에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국내 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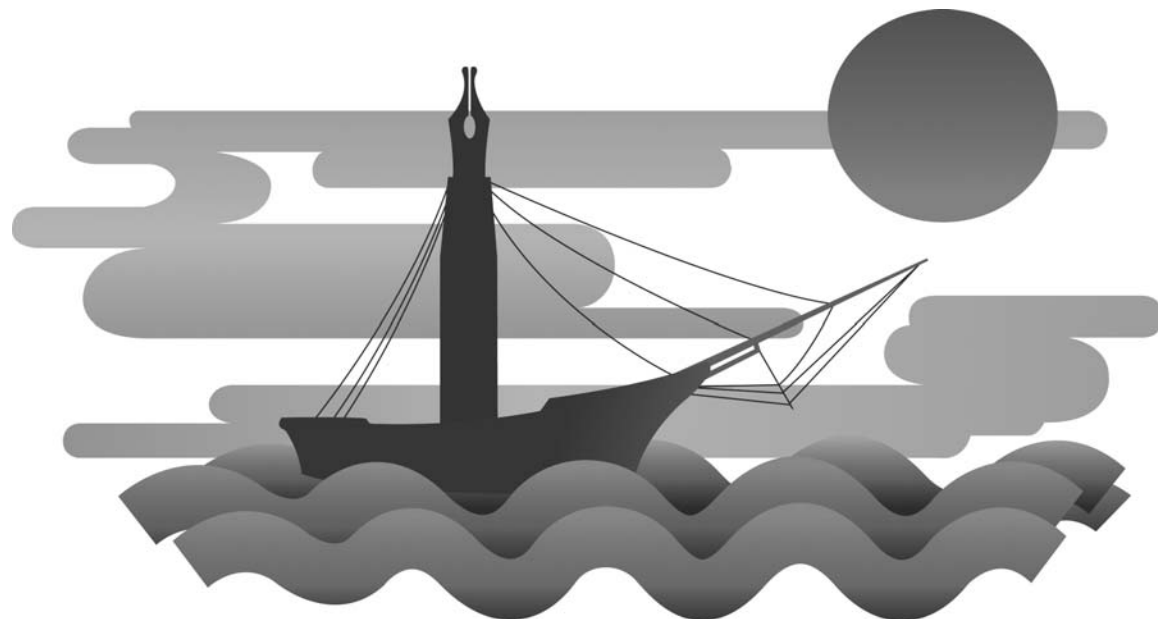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그러나 이는 자국에서 해당 증명서를 받아 주한 대사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를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이가 어린 체류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 이주여성들은 필수적이지만 개별 응시가 어렵다.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자동차를 소유하며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결혼 이주여성들은 양육을 위해 자동차 운전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시험은 4단계로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이다.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